

# 한글의 優秀性은 漢字가 있어 立證가능하다



閔寬植 (前 文敎部長官, 全國漢字敎育推進總聯合會 會長)

漢字와 한글併用敎育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한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우물안 개구리 식의 自家診斷보다는 客觀的인 經驗, 즉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漢字 모두를 接해보며 우리말을 배운 外國人을 통해 들어보는 이야기가 참으로 眞率한 內容일 수 있다.

TV등 여러 放送媒體와 CF모델 그리고 本人이 직접 韓-獨 合資會社를 經營하고 기업고문을 맡는 등 多樣한 經驗까지 두루 갖추면서 歸化한 獨逸人 李韓祐(이 이름도 韓國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담아 漢字로 지었다) 씨라는 분이 있다.

대개의 프린팅코리아 讀者들은 이 분을 잘 아시리라 믿는다.

神學博士이기도 한 이분이 '한글+漢字문화' 라는 잡지의 特別

對談코너에 나와 本人의 생생한 韓國語 익힘의 課程을 들려준 대목이 있다.

李博士는 韓國에 온지 24년이 됐고 歸化한 지도 17년이나 됐다.

그가 처음 韓國말을 배우면서 어려운 점은 잘 整理된 敎材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글을 푼으로만 배우는 데 意味도 모르고 생소한 音を 외우기만 하다보니 무척 헛갈렸던 모양이다.

예를 들어 생선(生鮮)과 선생(先

“정부는 동남아의 허브국가로 중국과 일본을 잇고, 러시아라는 가장 큰 대륙국가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로서 또 태평양연안국의 요충지로서 우리나라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물류정보국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물류와 정보는 다양한 언어를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중국과 일본의 언어를 조화할 수 있는 공용어인 한자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애써 그것을 외면한다면 가히 어리석음을 자초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生)이란 單語를 發音만으로는 뜻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나중에 漢字를 배우면서 韓國말이 쉽게 느껴지고 暗記도 더 잘되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母國語인 獨逸語를 배우던 逸話를 소개했다.

獨逸語를 깊이 理解하고 뜻을 把握하게 된 것은 9년간 라틴어를 배우고 나서였다.

獨逸語의 40%정도가 라틴어에 뿌리를 내린지라 文法의 경우는 아예 100%가량이 라틴어에 기초한 것이 獨逸語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韓國語는 70%가량이 漢字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분의 아이들조차 독일인 학교에 다니지만 漢字어를 教育시키고 있다는 事實도 곁들였다. 무려 1000자나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는 韓國의 新聞을 볼 때 漢字가 섞인 신문을 골라 읽는다.

漢字가 너무 많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역시 事實이지만 오히려 한글로만 된 新聞은 게을러지는 氣분이 든다고까지 表現했다.

漢字가 併記된 新聞이 술술 읽히는 것은 本人이 맞게 읽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또 한사람 高浩榮이라는, 中國의 世界的인 通信社인 新華社 서울駐在記者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中國에서 韓國語를 배우고 몇십 년을 韓國語로 일을 해왔지만 막상 韓國에 오니 文盲이 되었다고 周邊에 恨歎을 했다고 한다.

韓國에 오니 漢字가 併記된 간판이나 漢字와 한글이 어울린 글을 접할 수 없으니 그렇다는 것이다.

韓國생활을 하면서 觀念적으로 익히지 않으면 ‘쓰레기투기금지’라는 말의 ‘투기’가 投寄 投棄 投機중 어떤 것인지를 몰라 難堪하게 여겼다는 逸話도 곁들였다.

그리고 그는 해마다 급증하는 韓國의 中國觀光客을 지적했다.

韓國을 찾는 中國인들이 계속 늘어나지만 이대로 漢字語 하나 없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 韓國이 不便하다는 事實을 알게 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泰國 日本등지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憂慮도 함께 提起했다.

다음은 마리즈부르덴이라는 프랑스大使館 公報官의 實感어린, 韓國에서의 經驗談이 있다.

그는 파리의 國立東洋言語文化研究所에서 韓國語를 배웠다고 한다.

그때는 물론 漢字가 併記된 韓國語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韓國에 와 서울대法大에 들어가고 나니 專攻書籍에 들어간 漢字 때문에 할 수 없이 漢字를 배워야 했는데 처음에는 氣분이 안 좋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파리에서 韓國語를 배웠지만(韓國語의) 本土에 와 韓國語를 익히는 것과는 次元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自己和 같이 온 留學生중에 中國人과 日本人은 自身보다 훨씬 韓國語를 익히는 速度가 빨랐다고 한다.

그 理由, 즉 秘訣이 韓國語의 單語를 빨리 많이 익힐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秘訣의 核心은 漢字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事實이었다.

그리고 高野 進이라는 日本人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日本語學院 講師인 그는 韓國人 妻와 結婚해 韓國에서 生活하지만 日語를 가르치느라 韓-日, 日-韓 辭典을 매일 뒤적거리는데 韓國語의 대부분이 漢字에서 由來된 것임을 알고 어째서 韓國사람들은, 또 韓國社會는 漢字를 그리 쓰지를 않는가 疑訝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吐露했다.

그러면서 日本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漢字는 싫다며 漢字 어 배우기를 忌避하다가 90年代 들어 다시 漢字教育 熱氣가 달아올랐다는 事實을 紹介했다.

漢字는 적은 글자로도 많은 情報를 貯藏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PC가 登場한 以來로 漢字의 必要性이 커졌다는 것이다.

귀담아 들을 만 한 內容이다.

한글 역시 풀어 說明하여 적는다면 매우 긴 글을 貯藏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八旬에 접어들어 컴퓨터를 배우며 느낀 점이다.

더구나 名銜의 이름 같은 것을 電子手帖이나 컴퓨터에 그냥 한글로 記入하면 나중에 檢索을 하면서 왜 한글로 기록하여 貯藏했는가를 後悔할 적이 많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이상의 外國人들의 經驗을 통해 韓國語에서 왜 어째서 漢字가 排斥되면 안 되는가를 충분히 認知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야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먹는 '배' 요 저것이 타는 '배' 임을 알지만 外國인이 韓國語를 익히면서 어째서 그것을 알겠는가?

韓國이 國際舞臺에서 대우받으려면 韓國語와 한글이 그만큼 많이 普及되어야 하는 데 바깥에서 익히기 어려운 말과 글로 認識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한글 專用論者들의 強辯처럼 그토록 한글이 쉽다면 어찌 外國인들이 漢字를 모르거리는 한글을 익힐 수 없다는 不平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또 全世界 65億의 人口中 3分の 1에 육박하는 世界 華僑圈을 相對로 하는 世界化의 競爭時代, 21世紀 地球村의 삶에서 과연 진정한 내것을 主張하고 保護하는 方法이 무엇이었는가를 곰곰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여긴다.

적어도 文字로 볼 때 韓國人은 地球上에서 祝福받은 民族에 속한다고 본다.

그것은 優秀한 表音文字인 한글과 深奧한 表意文字인 漢字를 同時에 익히고 常用할 機會를 가진 民族이기 때문이다.

政府는 東北亞의 허브國家로 中國과 日本을 잇고, 러시아라는 가장 큰 大陸國家와 아시아를 잇는 架橋로서 또 太平洋沿岸國의 要衝地로서 우리나라를 國際 競爭力을 갖춘 物流情報國家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物流과 情報는 多樣한 言語를 消化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中國과 日本의 言語를 消化할 수 있는 公用語인 漢字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애써 그것을 外面한다면 가히 어리석음을 自招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의 同伴者가 漢字라는 점을 알리는 게 民族적 自矜心과



自負心에 무엇이 害란 말인가.

漢字가 있어야 한글의 優秀性을 外國人도 빨리 깨닫는다.

漢字와 한글의 併記를 主張하는 韓-漢教育은 이제 分秒를 다투는 21世紀 世界舞臺에서 自國語도 살리고 國家競爭力도 살리는 韓國의 윈-윈(Win-Win)教育을 象徵하리라 믿는다.

한 시가 급하다.

지금 당장 한글과 漢字併記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教育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官公署의 公文과 公式的인 書類에 漢字의 併記를 서둘러 導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生活化가 중요한 것이다.

英語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多元語의 必要性을 切感하면서도 다차려놓은 帛상과도 같은 漢字의 所重함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언제까지 가야 할 지 咄咄한 노릇이다.

<끝>